

社說

사격장 피해 특위활동 기대

포천시의회는 3개 지역(영평, 원평, 승진) 사격장에 대한 주민피해 조사를 위해 군부대사격장 피해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번 위원회는 군부대 사격장 주민피해 특위는 지난 반세기 동안 사격과 훈련으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시의원들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1억5천만원을 들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한다고 한다. 또 용역기관의 조사내용은 현지조사와 주민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그동안 발생한 피해액을 산정할 방침이다. 특위는 시의원 6명과 보조인력 6명 등 12명으로 구성되며 조사기간은 지난 12월 21일부터 2008년 6월 21일까지다.

계다가 포천시가 대형프로젝트 사업을 시행하는데 항상 걸림돌로 작용해 온 것은 군사시설보호법이나 수도권정비법 등 2중3중 규제법령이다. 하지만 군사시설이 많고 개발되지 않아 포천시는 고아팔로 수도권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포천지역을 수도권으로 포함시켜 지역이 발전하는데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정부는 집경지역지원사업법과 미군공여지관련 특별법을 제정해 포천시를 비롯한 집경지역과 미군공여지특별법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정반대적인 성격의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하지 않아 실효성이 전혀 없게 만들었다.

포천지역은 한국전쟁 휴전협정 이후 현재까지 반세기 동안 전곡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군부대가 많이 주둔하고 있다. 또 포천시는 동양최대 승진 훈련장과 한국 최대 규모 미군사격장인 영평사격장이 있는 지역이고 주한미군공여구역 국내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사격장과 훈련장, 그리고 주한미군공여구역 등에서 실시하는 각종 훈련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 가축사태, 분진, 건물균열 등 직간접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군부대사격장 피해대책 특위는 2008년 1월 피해조사 대상지 선정하고 2월부터 4월까지 용역을 실시, 군부대사격장 피해대책 선진사례수집, 사격장 관련 피해대책 토의 등을 거쳐 6월 피해에 대한 관련 자료를 중앙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런 조사결과를 토대로 포천시의회는 중앙정부에 피해구제 대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특히 사격장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마련, 군사시설 보호구역 조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번 포천시의회 특위활동으로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간접피해나 향후 발생할 피해에 대해 정확히 산출하고 그 근거를 토대로 보상책이나 사업적인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각종 군부대 훈련으로 인한 피해는 가시적인 피해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가 훨씬 많게 마련이다. 그러나 군부대측은 그동안 직접적인 피해만 산출할 뿐 간접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았다.

포천시의회 2007년도 의정활동 종료

2008년 본예산안 심의 의결 및 조례개정

포천시의회(의장 이강림)는 12월 4일부터 12월 24일까지 21일간의 일정으로 제38회 정례회를 개최하고 2007년도 한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포천시의회(의장 이강림)는 12월 4일부터 12월 24일까지 21일간의 일정으로 제38회 정례회를 개최하고 2007년도 한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4일에는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포천시장의 시정연설을 들었고, 5일과 6일에는 집행부로부터 2007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8년도 시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보고의 건을 청취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3천506억원에 달하는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해 38억 6천만원의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 의결했다.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포천시장이 제출한 7건의 안건을 처리하여 집행부로 이송했고, 서울의 객수환고속도로 전 구간 개통과 관련 일산-퇴계원 민자사업 구간 통행료 인하 결의문을 채택했다.

원외의 부부동반, 의정회 회원, 고조흥 국회의원, 황영철 포천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실과소 담당 국장 및 과장, 읍면동장을 비롯한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사종료 축하연을 개최하고 2007년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크리스마스 맞아 전의경 위문

포천경찰서 전의경 어머니회 내복 선물



포천경찰서 전의경 어머니회(회장 한명숙)는 12월 24일 전의경 위문 행사를 마쳤다.

이날 위문행사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전의경 어머니회장 이하 회원들이 3개조로 나누어 경찰서 회의실이 3개조로 나누어 경찰서 회의실이 112타격대, 축삭검문소, 만세교검문소를 방문하여 이루어졌으며, 이날 어머니회에서 손수 준비한 음식으로 점심식사를 함께 하였으며, 이 자리에서는 동절기 전의경들의 건강을 위해 어머니회에서 준비한 하의내복(타이즈) 62개를 전달하기도 하였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김귀찬 포천경찰서장을 비롯한 각 과장도 함께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으며, 이에 포천경찰서 전의경들은 "어머니회에서 이토록 신경을 많이 써주어 정말 감사"하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서 전역하는 날까지 건강하고 자제사고 없는 포천경찰서 전의경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제4회 백운계곡 동장군 축제 열린다

내달 4일부터 27일까지 이동면 백운계곡



제4회 포천 백운계곡 동장군 축제가 1월 4일부터 27일까지 이동면 백운계곡에서 열린다.

제4회 포천 백운계곡 동장군 축제가 1월 4일부터 27일까지 이동면 백운계곡에서 열린다.

이밖에 팬이치기, 나무놀이공예, 송어얼음낚시도 즐길 수 있으며 먹거리 마당, 농산물 할인 판매 행사도 함께 열린다.

포천시와 (사)도리돌지역활성화센터가 주최하고 동장군축제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축제는 '세 대공간 겨울체험'이라는 주제로 다채로운 체험행사를 마련한다. 눈 미로를 통과하며 토끼를 물 수 있는 눈동산 토끼몰이, 병풍질 벽의 절경을 감상하면서 눈썰매 타기, 얼음관 위에서 앉아서 타는 전통얼음썰매, 발갈로 안에 웅기종기 모여 감자·고구마를 구워먹을 수 있는 모닥불 피우기 등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풍성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또한 물과 바람과 나무가 만들어 내는 다양한 모양의 얼음기둥 작품 20점을 백운계곡을 따라 이동하며 감상할 수 있으며 눈동산 토끼몰이 장 안에 이글루, 다보탑, 용 등 다양한 얼음작품도 전시하여 가족단위의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 예정이다. 문의 031)535-7242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미혼 '소방공무원 슬로탈출119' 행사

포천소방서, 미혼 남녀소방공무원의 후생복지지원

포천소방서(서장 이보형)는 12월 18일 오후 7시 포천시 자자동소재 조선타이라는 장소에서 '슬로탈출 119'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공유하며 또한 근무 여건이 당면 및 비면 근무로서 당면 일 24시간 계속 근무 후 쉬는 날인 비면 일에도 각종 특별경계근무, 소방검사 및 지수리 조사 등으로 일새 없이 근무에 임하여 사실상 이성을 접할 수 있는 여건이나 시간이 많지 않은 소방공무원 각 개인의 안정된 생활을 위한 미혼 남·녀 소방공무원의 실질적 후생 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행사 추진 배경은 미혼 소방공무원 개인의 문제가 아닌 생산적 조직 유지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참여 인원으로는 미혼 남성 소방공무원 10명과 상대편 미팅 대상자 여성 10명이 1부 행사로는 자기 소개 및 알콩달콩 로테이션 대화미팅을 나누었고 2부 행사로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의 민찬행사 및 커피



플간의 자유로운 개별시간을 갖는 순으로 진행되었고 이후 계속적인 만남은 각 커피별로 온라인의 네이비 카페인 '슬로탈출, 아름다운 만남'의 방에서 개별적으로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포천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슬로탈출 119 행사 실시로 미혼 소방공무원들 개인의 안정된 생활과 바람직한 직무 전담 분위기가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4-H연맹 포천시지회 연찬회 개최

회원 단합과 결속으로 지방화 시대 부흥

한국4-H연맹포천시지회(회장 유재하)는 12월 21일 4-H연맹회원들과 역대4-H임원 및 영농4-H회원 등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품목조직 새소독원개발 현지연찬회를 실시했다.

이번 연찬회는 4-H연맹의 활동을 보다 내실화하고 회원의 단합과 결속을 다짐하여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조직의 활동을 강화하고자 실시된 것으로 포천·선단동 4-H연맹의 마재배 활동 사례 발표, '최근 농업동향과 우리의 과제'란 주제로 이영석 한국농업대학 교수 특강, 회원들의 친목도모를 위한 화합의 시간 등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는 어려운 농업 현실



속에서 포천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비전을 모색하고 회원들과 마음을 모으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다는 평이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Subscription information for Pocheon News, including contact details and pricing.

Large advertisement for Pocheon News with the headline '언제나 바른뉴스!' and the newspaper's name '포천신문'.